

	<b>보 도 자 료</b>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미래창조 금융</li><li>• 따뜻한 금융</li><li>• 튼튼한 금융</li></ul>
	<b>7.27[월] 조간부터 보도가능</b>		

작성부서	금융정책국 글로벌금융과		
책임자	탁윤성 과장 (2156-9780)	담당자	윤영주 사무관 (2156-9786) 유승완 주무관 (2156-9792)
배포일	2015. 7.26(일) 14:00	배포부서	대변인실(2156-9543~48) 총 3매

**제 목 :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, 한·베 금융협력강화 및 글로벌  
금융시장 동향 파악을 위해 베트남·홍콩 방문**  
**- 국내 금융회사 애로사항 논의를 위한 한·베 정기협의채널 신설 합의**

①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베트남 재무부 및 중앙은행과 정기협의채널을 신설하는 등 금융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, 중국 등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7.23(목)~7.25(토) 중 베트남과 홍콩을 방문

○ (베트남) 베트남은 미국·중국 다음으로 국내 금융회사들이 많이 진출<sup>\*</sup> 하였으며, 금융당국 간 정기협의채널 신설에 대한 업계 수요<sup>\*\*</sup>가 가장 높은 국가

\* 금융회사 해외점포 진출현황('15.3월) : 중국(68개), 미국(51개), 베트남(43개)

\*\* 임종룡 금융위원장 해외진출 현장간담회(5.8) 시 업계의견

\*\*\* 금융회사 해외사업 활성화 지원방안(7.16) 중 금융외교채널 확충방안의 일환

○ (홍콩) 최근 AIB 설립에 따른 아시아 지역 SOC PF수요 증가, 중국 증시의 급격한 변화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중심지인 홍콩을 방문하여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및 대응방안 등 논의

② (베트남 중앙은행 부총재 면담) 정찬우 부위원장은 베트남 중앙은행 응우웬 푸크 탄(Nguyen Phuoc Thanh) 부총재와의 면담에서 정례회의(Shuttle Meeting) 신설, 한국계 은행 베트남 진출 협조 등 논의

- 정찬우 부위원장과 응우웬 폭 탄 부총재는 **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제안\***한 한국 금융당국·베트남 중앙은행 간 **정례회의 신설**에 대해 **합의**하고 논의 주제, 방문형식 등 실무적인 사항 논의를 곧바로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**향후 양국 금융분야 협력에 많은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**

\* 임종룡 금융위원장·부반닝 경제금융부총리와의 오찬('15.5.18)시 제안

- 특히 응우웬 폭 탄 부총재는 **정례화가 감독·검사 경험 공유 등 양국 금융당국간 협력이 강화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** 그 의의를 강조
- 아울러, 정찬우 부위원장은 **베트남 진출을 추진 중인 우리나라 은행들에 대한 협조를 요청**하였으며
- 응우웬 폭 탄 부총재는 **한국계 은행 베트남 진출 추가 승인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** 화답

**[3] (베트남 재무부 차관 면담)** 정찬우 부위원장은 베트남 재무부 쩡 치 쯡 (Truong Chi Trung) 차관과의 면담에서 포괄적 **MOU체결** 및 **정례협의 신설** 등 논의

- 정찬우 부위원장은 **금융협력 강화를 위한 금융위-재무부간 정례 협의체 신설을 제안**하였으며,
- **쩡 치 쯡 차관은 이에 대해 적극 공감하면서,**
- 양국 금융당국 간 **정례회의 개최, 보험시장 감독 경험 공유 등 포괄적 내용의 MOU를 금년 4/4분기 중 체결\***하자고 화답

\* '12.3.29 체결한 금융위원회와 베트남 재무부간 MOU 개정

**4 [현지 진출 금융인/전문가 간담회]** 정찬우 부위원장은 베트남 진출 금융회사와 홍콩소재 글로벌 IB 전문가들과 각각 간담회를 개최

- 베트남 진출 금융회사의 영업 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홍콩 소재 외국계 IB 전문가들과 그리스 재정위기, 중국시장 동향, 일대일로\*\* (One Belt One Road) 및 AIIB활용방안 등에 대해 논의

\*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, Blackstone, JPMorgan, WellsFargo Securities, KDB 홍콩법인, 대우증권 홍콩법인 등(6개 기관)

\*\* 육상 실크로드 경제지대와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 아시아·유럽·아프리카 대륙을 연결, 인근 일대를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중국 정부의 대규모 인프라개발 프로젝트

**5 [금번 출장의 의의]** 금번 출장을 통해 베트남 금융당국과 정기협의 채널이 신설됨에 따라, 향후 국내 금융회사의 베트남 진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

- 앞으로 금융위는 인도·미얀마·중국 등 주요 진출대상국과 회의 정례화를 추진하는 등 금융외교채널을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

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http://www.fsc.go.kr>